

중국 본토 '애국주의 물결' 떠들썩 '반환 기념일' 홍콩은 삼엄한 경계

공연·훈장 수여·영화·드라마

창당 100주년 분위기 띄우기

빈과일보 폐간 반감 분출 대비

경찰 1만여명 홍콩 전역에 배치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눈앞에 둔 중국이 애국주의 물결로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본토와 대조적으로 홍콩에서는 경찰 1만명이 깔려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중국은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을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으며 14억 중국인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베이징 거리 곳곳에 공산당 100주년 선전물이 붙어있으며 아파트마다 주민들이 기념 공연을 펼치는 등 공산당 100주년 축하 분위기는 한껏 고조돼 있다.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서는 지난 29일 '#7·1 훈장 첫 수여#'라는 주제가 10억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과 인민에 큰 공헌을 한 당원 29명을 선정해 처음으로 최고 영예인 '7·1 훈장'을 수여했고 관영 CCTV는 이를 3시간 동안 생중계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8일 밤에는 시 주석 등 최고 지도부와 당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문예공연을 열어 코로나19 극복 등 공산당의 업적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 CCTV가 웨이보에 올린 공연 관련 방송 기사에는 1만 6000개의 댓글이 달렸다. 많은 중국인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등에서도 100주년 관련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딸의 숙제 과제물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우주 탐사, 방역 등의 성과를 표현한 창당 100주년 기념 포스터를 공유했다.

입당 50년이 넘는 가족이 최근 기념장을 받아 목에 건 동명상을 올린 온라인 이용자들도 있었다.

중국의 애국주의 물결은 공산당 창당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에서도 나타난다.

7월 1일 정식 개봉 예정인 영화 '1921'은 사전 상영에서 사흘간 7000만 위안(120억원)이 넘는 입장수입을 올렸다. 같은 날 '혁명자'라는 영화도 개봉한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연일 공산당의 성과를 선전하며 영구적인 집권 정당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9일 7·1 훈장 수여식에 이어 전국 우수 공산당 현위원회 서기 표창대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수상한 현위원회 서기 103명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 발매식도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7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판매된다.

축제 모던인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홍콩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자, 홍콩 주권반환 24주년 기념일인 7월 1일 경

찰 1만명을 전역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 홍콩 성도일보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경찰 1만명이 시 전역에 배치되며 유사시 빅토리아파크가 봉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집회나 시위에 따른 위협은 현저히 줄었으나, 당국은 최근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폐간 등에 따른 반감이 분출될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7월 1일 시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는 대규모 주권반환일 가두 행진과 집회에 열렸다. 그러나 최근 대표가 실행을 선고받은 민간인권전선은 올해 18년만에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시민단체 3곳이 집회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불허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코즈웨이베리와 몽콕 등 번화가에 부스를 차리고 정치사범 석방과 반대파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과 홍콩 주권반환 24주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단 트램이 홍콩 시내를 달리고 있다. 7월1일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자 홍콩 주권반환일이다. /연합뉴스

미국 구인난에 긴급 실직 지원금 축소

22개주 팬데믹 실업보조금 중단

미국 경제가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주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 현금 지원을 축소하는 흐름이라고 미 매체 약시옌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26개주가 주당 300달러(약 33만원)의 추가 실직자 지원금을 끊었고 이 가운데 22개주가 자영업자, 단기 임시고용직, 프리랜서에 지급하던 팬데믹 실업보조(PUA)를 종료했

거나 감축하고 있다. PUA는 애초 9개월 종료될 것으로 예고됐지만 미국 주의 절반 정도가 이를 조기에 끝내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지난해 미 연방정부가 도입한 PUA는 전통적인 개념의 실직자에게 주던 실업수당과 별도로 실업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구직하려고 생각만 했던 사람도 받을 수 있었다.

PUA의 폭넓은 '실직자 인정' 기준으로 실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600만명의 미국인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PUA가 오히려 구

직 의욕을 약화해 단기 임시직이 필요한 업종의 인력난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시옌가는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 호출업종, 살아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PUA 수급 대상자인 단기 임시 고용인력에 의존하는 데 지금 인력난이 심각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지금 팬데믹 국면에서 도입된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은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직원을 찾지 못하는 산업으로 인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규모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주가 PUA를 종료하면 실업수당에서 제외된 미국인의 수입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미 트랜스젠더 여성, 네바다 미인대회 우승

11월 열리는 미스 USA 첫 출전

미국 네바다주 미인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처음으로 우승했다.

모델 일을 하는 성전환 여성 카탈루냐 엔리케스(27·사진)는 미스 USA 네바다주 대회에서 21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리의 왕관을 썼다고 29일(현지시간) 뉴스위크 등이 보도했다. 엔리케스는 네바다주 대표로 선발됨에 따라 올해 11월 열리는 미스 USA 본선에 출전하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된다.

그는 "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고 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사람들은 미인대회가 아름다움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인대회는 여러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 정체성 때문에 학창 시절 괴롭힘에 시달렸고 신체적, 성적 학대까지 당했다면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하고 차별 문제를 알리기 위해 미인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드레스를 입고 출전했다.

엔리케스는 "제 인생의 여정은 쉽지 않았고 어



느 순간에는 투쟁이었다. 학대, 정신 건강 문제와 싸웠지만 나는 살아남았다"며 "차이가 여러분의 능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신 안 된다. 차이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합숙훈련 외국선수단 감염자 나오면 전원 격리

일본 정부 올림픽 방역 대책 강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막에 앞서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일본에 미리 들어오는 외국 선수단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합숙 훈련을 함께하는 선수단에서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 전원을 일단 격리하는 내용을 담은 관할 지자체(호스프타운)용 방역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외국 선수단 중에 감염자가 생기면 코치를 포함한 선수단 전원을 호텔 개인 실 등에 격리하고 연습 중지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격리된 후에는 밀접 접촉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야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합숙 훈련을 하는 지자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선수단에 일본 입국 14일 전부터 행동 및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선수들이

단체로 식사하는 경우엔 대화를 삼가는 '묵식'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지자체 도착 전 공항검역소에서 양성자가 나오면 밀접접촉 의심자는 모두 격리돼 다른 버스로 이동해야 한다. 이동용 버스로는 화장실이 설치된 것을 배차해 일반인과 접촉할 수 있는 휴게소를 들리지 않도록 했다. 또 외국 선수단 버스를 모는 운전자와 동승한 지자체 관계자에게는 선수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일한 우간다 선수단 중에 공항 입국 단계에서 첫 양성자가 확인됐지만, 밀접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동을 허용해 추가 감염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방역체계의 허점을 비판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작년 11월 지자체에 제시했던 호스프타운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29일 현재 외국 선수단 합숙 훈련을 지원하는 호스프타운으로 등록된 지자체는 총 530곳이고, 합숙 훈련 대상 국가와 지역은 184곳에 달한다. /연합뉴스

49.5도 '불가마'... 캐나다 사상 최고 기온 경신

서부 이례적 폭염 최소 69명 사망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기온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후 섭씨 49.5도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이날 트위터에 "오후 4시20분 리턴 관측소의 기온이 49.5도(화씨 121도)를 나타내며 3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사상 최고 기온"이라고 밝혔다. 밴쿠버에서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리턴 지

역은 전날인 28일에도 47.9도까지 오르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등 북서부 태평양 연안지역, 더 북쪽인 캐나다 지역까지 전례 없는 폭염이 강타했다. 보통 이 시기 평균 기온이 20도 중반 정도로 크게 덥지 않았던 북쪽 지역에서까지 이례적인 폭염이 나타났 것이다. 이번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6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FP는 전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